

너(汝)의 섬(島) 여의도, 우리의 섬 되다

쓸모없는 땅이라 하여 너나 가질 섬, 너의 섬이라는 별명을 지녔던 여의도. 반세기의 흐름 속에 정치·경제·언론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의도비행장(1949)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인 여의도 비행장. 1910년대에는 일본이 간이비행장으로 사용하였고, 1924년 정식 공항으로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1948년에는 군과 민간이 함께 비행장을 사용하였다.

한강개발계획과 함께 시작된 여의도의 변화



여의도 개발 공사 중 모습(1968)



여의도 윤중로 제방공사(1968)



양말산(現 국회의사당 자리)철거(1968)



여의도 시범아파트 준공(1971)

오늘의 여의도, 너와 나 모두의 섬



여의도 주민의 허파 여의도 공원

수백만 명이 봄꽃축제를 즐기는 여의서로(舊윤중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정치·경제·언론의 중심, 여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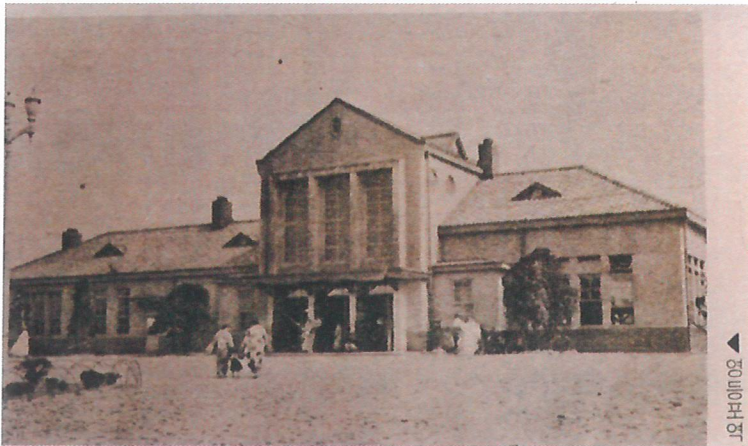
꿈과 희망이 들고나는 곳, 영등포역

1899년 경인철도 개통 이후 1904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영등포역은 일찌감치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등포 구민의 꿈과 희망을 실어다주는 장소가 되어왔다.

100여 년 전, 서울-부산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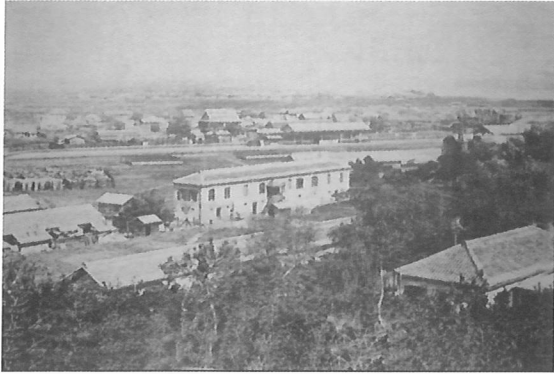


경부철도 기공식, 영등포역(1901)



경부선 개통 이후 영등포역(1917)

20세기 초 역전풍경



1920년대 영등포역 주변 시가지



1930년대 영등포역 앞 거리 모습

6.25전쟁 후, 전보다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신축한 영등포역(1965)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영등포 랜드마크1호
오늘도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영등포역에서 출발합니다.

안양천 따라 살고, 걷고, 달리다

주변의 가정집에 논밭에 공장에 물을 제공해주던 안양천.
동네 이웃과 오손도손 마실 나가 걸었던 안양천 뚝방길.
주민들의 삶은 때로는 잔잔히, 때론 격렬하게 흐르는 안양천과 함께 흘러갔다.

안양천 뚝방길



뒤로 영등포 유일의 산 '쥐산'이 보인다(1962)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 앞(1981)

* 쥐산은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산으로 4.1ha(0.041km²)이고 정상의 높이는 해발 50.5m이며 산 아래에는 국제적 규모의 인조언덕 높이 18m, 폭 90m의 양화인공폭포가 설치되어 있어 김포공항 방향으로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시원한 인공폭포수를 선보이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선유봉이 고양이가 쥐를 발견하여 발톱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에 비해서, 쥐산은 먹이를 앞에 놓고 있던 쥐가 금방이라도 도망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안양천 강계밭(1970년대) 강 근처에 있다고 해서 강계밭이라 불렀다.



1979년 홍수로 인해 안양천이 범람하여 침수된 가옥들

안양천변의 어제와 오늘



1970년대 안양천변의 판자와 슬레이트지붕 집들. 살던 이들은 어디론가 밀려나고 이제는 개나리가 만발한 길가와 차들이 달리는 서부간선도로로 바뀌었다.

현수막으로 본 영등포

예나 지금이나 시대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는 신문, 잡지, 거리거리에 걸린 게시판 등 각종 인쇄물이다. 그때 현수막에 찍힌 의미들, 그 시절 함께한 사람들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 보자.

노량진 수산시장, 영등포 수산시장 될 뻔하다



수산시장 허가 철회 요구 시위(1964)

당시 서울시장이 영등포구 내에 수산시장 허가(現 마사회 앞 성남빌딩 자리)를 내주자 영등포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유지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

단합과 의식개혁이 중요했던 그때 그시절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1982)

개발계획 속에 잃어버린 초록을 되살리다



문래근린공원 조성기공식(1984)



영등포경찰서(現 마사회 건물 자리, 1985)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가치, 구민과의 소통·화합



구민대축제(1988)



구민체육대회(1995)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_개업·개관

부자를 꿈꾸며 저축을 다짐하던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동사무소 새로 열던 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 전문센터 개관 등 우리들이 경험한 크고 작은 '시작'을 돌아본다.

저축사랑, 나라사랑



당산1동 새마을금고 개업(1987)

이젠 새 사무소로 오세요



신길3동사무소 새 청사 열던 날(1992)



튼튼하다, 신길5동 동사무소(1993)

시니어 행복시대를 활짝 열다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개관(2000)

사라진 문화재와 전설

영등포구에는 없는 게 딱 두 가지란 말이 있다. 산(山)과 문화재가 그것인데, 그만큼 영등포구에는 타 자치구에 비해 역사적인 문화재가 많지 않다. 그러나 문화재가 과거의 산물인 만큼 오늘날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가치 있는 일들이 훗날 역사가 되어 뜻 깊은 문화재가 될 것이다.



대방초교 내에 있던 연령군 신도비(1964)

조선 19대 임금인 숙종의 여섯째 아들인 연령군 신도비는 원래 영등포구 신길7동 대방초등학교 내에 있었으나 1940년 구획정리로 인해 1967년에 육군사관학교 안으로 옮겨졌다.

영등포 전설의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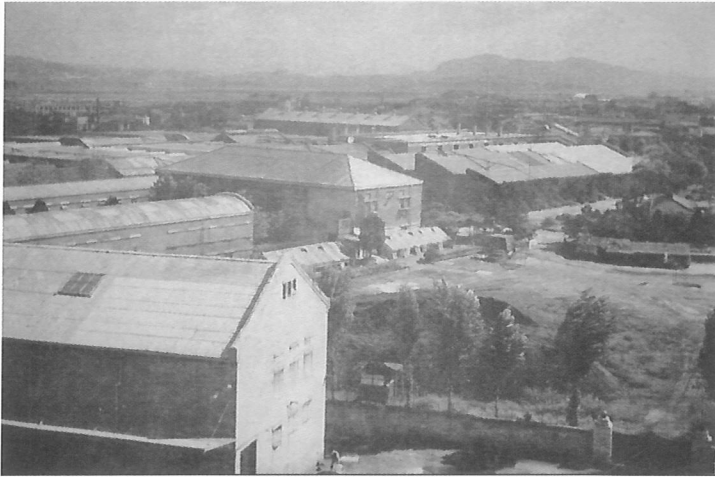


1970년대 귀신바위

올림픽 대로변 여의도 샛강 가에 있는 큰 바위 아래로 강물이 흘렀는데 수심이 깊어 이곳에서 놀던 사람들이 주위풍경에 도취되어 실수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아 바위에 귀신이 붙었다고 하여 귀신바위라고 불렀다.

번영과 행복을 짜다_방직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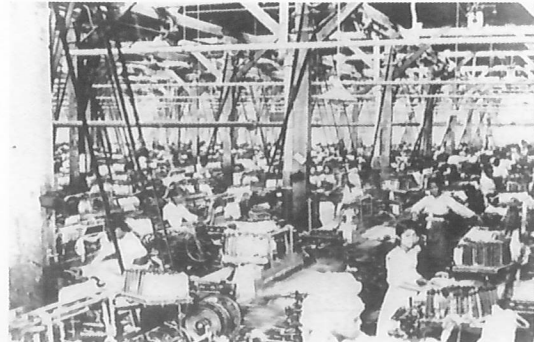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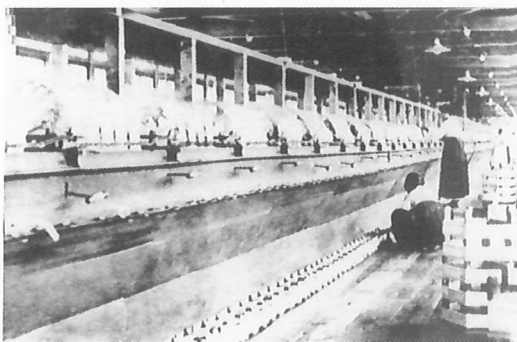
영등포동의 경성방직, 문래동의 방림방직, 양평동의 한국, 대한모방 등이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섬유산업체로 자리 잡았다. 방직산업은 주류산업과 제당·제과 등 공산품 산업과 더불어 영등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1930년대 경성방직공장

한강과 안양천이 있어 물 공급이 수월해 방직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이 영등포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고운 실 뽑아 튼튼한 천으로-1950년대 경성방직 공장 작업 모습



섬유산업의 양대산맥



1970년대 경성방직



1980년대 방림방직

경성방직의 진화와 변신



경방프라자(現 신세계백화점 자리)(1992)



타임스퀘어(경성방직 자리)

방림방적이 사라진 자리



문래동 홈플러스, 자이아파트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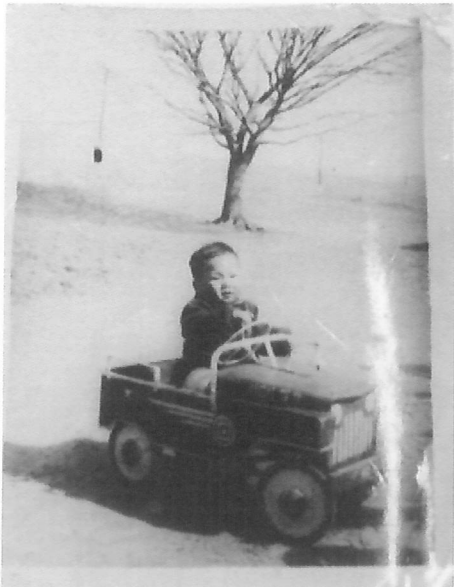
나, 이 자리에 있었다

여기는 김포가도(현 노들길)



취산을 배경으로 김포가도변에서(1965)

멋쟁이들의 로망, 지프차 앞에서(김포가도 밀, 1965)



나도야 오너 드라이버 (김포가도 밀, 1965)

그 옛날의 포토존

온 가족이 놀러 나오기도 하고 친구끼리 팔짱 끼고 걷던 한강둔치. 특히 제2한강교, 즉 현재의 양화대교 앞은 당시 인기있는 사진 촬영지였다.



잘 찍어 주세요! (1965)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사진 (1967)
졸업사진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곳!

영등포 구민의 발_특별한 교통수단들

수변도시답게 물을 건너다니며 생활을 영위했던 영등포 사람들. 영등포구청 역에서 출발하는 전차에 몸을 싣고 저마다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이 되어보는 시간.



1890년대 한강을 건너다니던 황포 돛배



1920년대 한강 나룻배



이 배 놓치면 학교 못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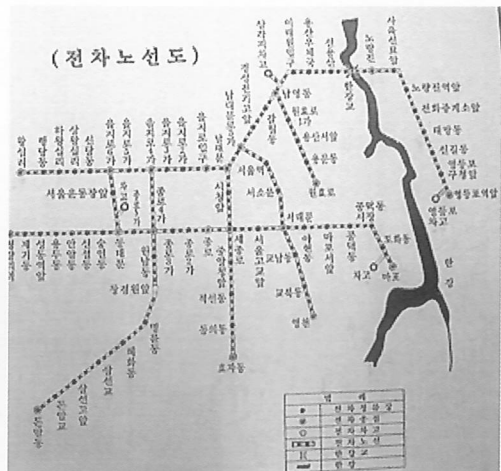


안양천을 건너는 사람들(양평동, 1968)

추억행 전차가 곧 출발합니다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운행된 전차



전차노선도

우리의 터전이었던 그 동네

가족과, 그리고 이웃집 친구와 함께 했던 따뜻한 추억들. 그 추억들이 묻어 있는 우리 동네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 본다. 컷가에 절로 스며드는 '나의 살던 고향은...'



신길동(1930년대)

지금의 현대화된 거리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1930년대 모습. 길 양 옆으로 논밭이 펼쳐지며 시골정취를 물씬 풍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진 속 길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다.

가족, 이웃과 함께 보낸 소중한 기억



명절날 가족이 모여 널뛰기 한마당(양평동, 1960)

집앞에서 함께 뛰놀던 동네 친구(신길동 가막골, 1964)

세발자전거 타고 동네를 휘젓다(문래동, 1979)

정감이 넘쳤던 그 시절, 그 동네



1970년대 문래동 오백채마을



1980년대 도림동 돼지마을



1980년대 도림사거리 원지막마을



1980년대 영등포동 고추말고개

동네 이름의 유래

- * 오백채마을 : 문래동4가에 있던 마을로, 일제강점기에 문래동 일대에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인구가 증가해 1940년경 일본인들이 영단주택을 지었는데, 그 규모가 500채 가량 되었다고 한다.
- * 돼지마을 : 도림 2동 152번지 일대에 있던 마을로서, 돼지를 많이 키웠던 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 * 원지막마을 : 도림 1동에 있던 마을로서 현재 151번지 일대에 과수원이 있었던 것에서 '원지막마을'이라고 불렀다.
- * 고추말고개 : 영등포구 도림 1동 주민센터에서 영등포 1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겨울철 고개를 넘을 때 바람이 몹시 찬 것이 고추처럼 맵다 하여 고추말고개라 불렀다.

41만 구민 행복발전소, 영등포구청

사회가 크고 복잡해지면서 주변을 치우고, 도로를 닦고, 재난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등 구청은 구민의 전반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영등포구청은 현재 33개 과와 152개 팀, 그리고 18개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구민 행복을 실현하고 있다.



1940년대 영등포출장소

1936년 경성부 구역 확장으로 영등포읍이 영등포출장소가 되었으며, 관할 하에 영등포정, 여의도정, 당산정, 도림정, 양평정, 양화정, 신길정을 두었다.



영등포 일간신문 기자단, 구청 현관에서 기념사진 찍다(1959)



영등포구청(1960년대)

1943년 구(區) 제도 실시와 함께 영등포구로 승격된 이후의 영등포구청 청사.

구민과 구 의정의 전당 탄생



구민회관, 구의회청사 기공식(1991)



영등포구민회관 개관, 구의회 이전(1992)

담을 허물고 구민과 허물없이



구청 벽 허물기 행사(1995)

영등포 구민의 건강전담반 설립



보건소 청사 준공(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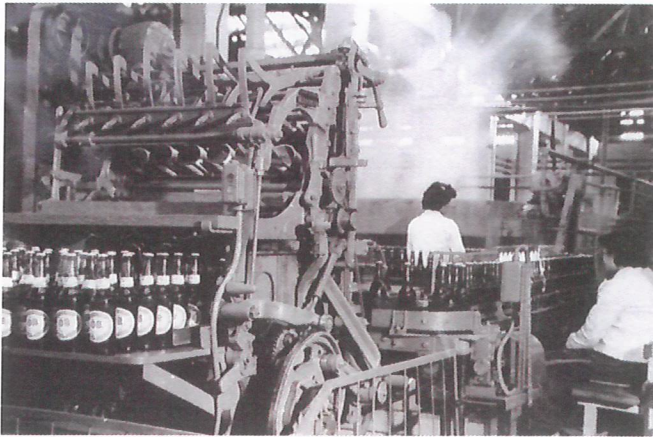
교육·복지·사람중심 새 영등포



영등포구청(현재)

굴뚝산업의 발상지 영등포

관악, 구로 등 6개 이상 서울시 자치구의 모태가 되었던 영등포는 각종 산업발전의 요람이기도 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류산업과 섬유산업, 제당·제과 등의 공산품 산업들은 모두 영등포를 터전 삼아 성장했다.



1950년대 OB맥주 생산라인



당시 사용한 OB의 맥주솥
(現 영등포공원 소재)

OB와 크라운, 라이벌의 시대 누구 굴뚝이 더 높았을까



1980년대 OB맥주 공장



1980년대 크라운맥주 공장

자매품 소주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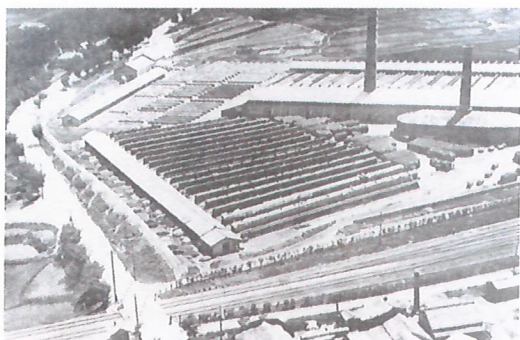


진로 서울본사, 공장(1976)



진로소주 서울 생산라인(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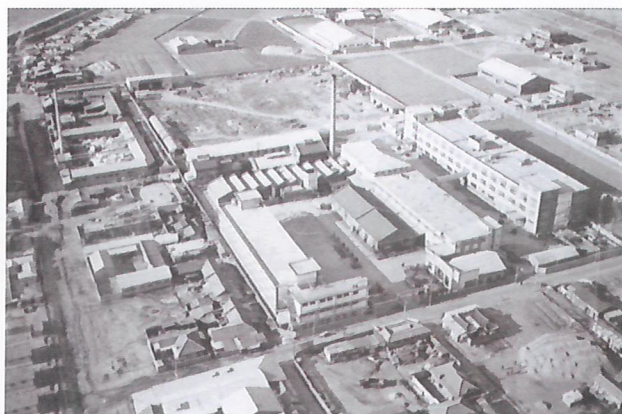
<영등포를 키워낸 수많은 산업들>



1950년대 영등포 도자기공장



1960년대 양평동 공장지대(해태제과)



1970년대 당산동 공장지대

여의도와 함께 영등포 섬(島) 3총사_밤섬, 선유도

영등포구는 현존하는 한강 속의 주요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구이다. 신선이 노닐던 곳이라는 선유도, 여의도 개발에 희생됐지만 새롭게 쌓인 퇴적물로 도심 속 철새도래지가 되어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밤섬을 돌아본다.

<육지로 건너온 섬, 선유도>



1930년대 선유도와 양화나루터

산의 형국이 고양이같이 생겼다고 하여 일명 고양이산으로도 불리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양화대교 북단에 위치했던 양화나루터는 한강도(나루터)와 아울러 고려 때부터 중요한 도선장의 하나였으며 조선 초에 이미 도승이 배치되었다.



1940년대 선유도와 백사장

1962년 양화대교를 건설할 때 사진 속에 보이는 봉우리를 깎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옛 모습을 볼 수 없다.



<이제는 갈 수 없는 섬, 밤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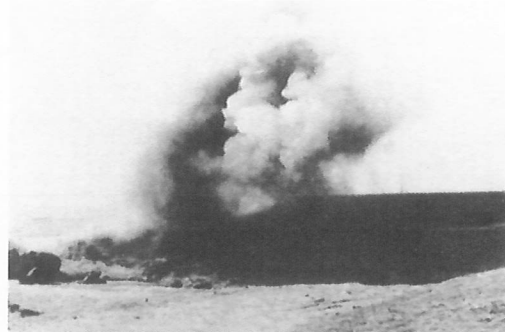
1960년대 밤섬 마을 모습

밤섬의 면적은 134필지 1만 7393평이었고, 78가구 443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집성촌이었다. 이곳은 수백 년 동안 배를 만드는 장소였는데,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었다.

인위적으로 없앤 국내 최초의 섬



폭파 전 한강 밤섬(1968)



폭파되는 밤섬(1968)

밤섬 폭파로 생긴 흙과 암석은 여의도 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공원이 된 선유도



선유도공원은 선유정, 시간의 정원, 옛 정수처리장을 활용한 설치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원으로 영등포만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다시 태어난 밤섬



여의도 개발로 사라졌던 밤섬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억새와 갯버들 등이 자생하면서 도심 속의 철새도래지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그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등포 사람들, 뭐하고 놀았을까

그 시절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 오늘날만큼 여가,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을 때라 하더라도 인간이 유희의 동물인 이상 어느 시대든 ‘놀이’는 있었으리라.

해운대가 아닙니다, 한강입니다



1950년대 피서철 한강 백사장



1950년대 한강 배트놀이 모습



영보극장(영등포동, 1965)

영등포 최초의 극장으로 1951년 개관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주차빌딩이 들어섰다.



동시상영, 영화 인심마저 후했던 날들



남도극장(당산동, 1981)

돌아기도 함께 축하한 준공식



영등포 시범상가 조성 준공(1985)

1997 영등포 극장 춘추전국시대



경원극장(영등포동2가)



명화극장(영등포동2가)



연흥극장(영등포동3가)

문화·여가, 극장을 벗어나다



문래창작촌 모습

시간이 멈춘 듯 예전 모습을 간직한 철공소 거리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예술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됐다. 문래창작촌은 관(官)의 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자유 의지로 생겨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강, 변함없는 서울시민의 놀이터



그 옛날 백사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 정겨운 이야기가 흐르는 한강은 서울시민 모두의 쉼터.

길에서 만나다

거리를 걷다보면 만나는 풍경들. 가로수, 사람, 가게.... 길은 단순히 도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길은 인생의 발자국을 그대로 담아내기에 내 걸을 스쳐지나간 모든 풍경은 곧 나의 인생을 스쳐지나간 인연이다.



1960년대 영등포시장 사거리

길과 사람



양평1동 파출소 앞(1967)





영등포시장 로터리 중앙예식장 앞 (現 뉴영등포귀금속 앞, 1978)
 길게 하늘을 향해 뻗은 것은 국내 최초로 설치한 태양열시계. 당시 영등포
 구청장과 로터리클럽 회원들이 함께 모여 이를 기념했다.



1980년대 영등포 중심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성형외과 간판과 '카사노바 스탠드바'가
 의외의 재미를 준다.



1980년대 당산로

다소 투박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버스와 포니 택시가 향수를 자극한다.

모든 길은 영등포 로터리로 통한다



영등포 로터리의 과거와 현재. 차가 많지 않아 한산했던 도로는 이제 버스와 택시, 승용차로 메워졌다. 동으로 서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영등포 로터리.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역 방향을 바라본 1990년대 거리. 이제는 그 이름이 사라진 은행과 오늘날 더욱 사세를 굳건히 한 프랜차이즈 간판. 人生之事 塞翁之馬.

배운다, 고로 성장한다

돌아보면 가장 그리운 학창시절. 추억이 돼버린 나의 첫사랑 옆 짝꿍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학교. 이런저런 사고를 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용서되던 그 때.



영등포초등학교 (문래동, 1947)

1945년 4월 5일
 정성 영등포초 2학년 심상
 고등소학교



우신초등학교 (신길동, 1969)

1951. 3. 5
 정성지 시흥초
 영등포초등학교 4학년 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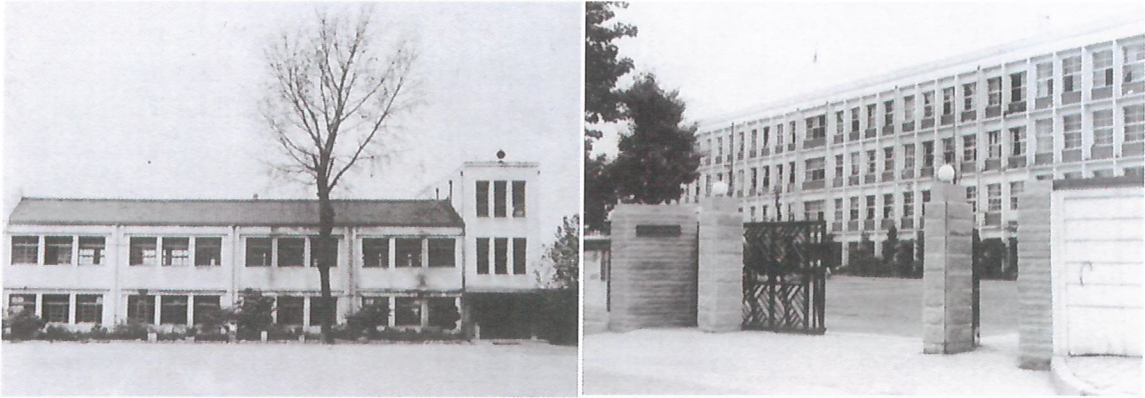




6.25전쟁 발발 후 우신초등학교에 주둔한 이탈리아 의무부대 (1952)
간호장병과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졌던 이 부대는 1951년에 이 학교에 임시 진
료소를 세우고 22만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 부상자들을 진료했다.



영등포여자중학교 (1972)
영등포여중은 1999년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면서 영원중학교로 바뀌었다.



영등포공업고등학교 도서관 (1969) 학교 본관 (1990년대)
 학교는 원래 당산동에 있었지만 1994년에 강서구 가양동으로 이전했다.



학교 담벼락 뒤를 청소하는 영등포공고 학생들 (1977)
 왼쪽 염색공장과 오른쪽 학교 담장. 군부대같은 느낌을 주는 담장 위 철조망이
 당시 삭막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만 같다.

주말이 되면 발길이 향하던 곳. 교회



양평동교회 (1926년) 12칸 교회를 18칸으로 증축한 후 찍은 사진



양평동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사진(1957년) 주일학교 학생이 모두 모였다